

## 新世代 -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鄭成鎬\*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특징은 적나라한 내용, 가파른 속도, 넓은 진폭, 깊은 강도 등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지난 30년간 줄곧 체험해 왔다. 이것은 미국의 사상가 드러커(P. F. Drucker)가 「새로운 현실(The New Reality)」의 한국어 판 서문에서 쓰고 있듯이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현재 살아있는 한국인들이 일생 동안 겪었던 것과 같은 급격한 변혁을 경험해 본 나라는 아직 없다”고 할 정도의 체험이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개되어 왔다.

신세대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어느 시대에나 젊은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대담한 자기 표현으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세대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그 어느 시대보다 다채롭고 자유로우며 기발하다. 우리가 일찍이 누리지 못했던 경제 성장, 민주화 물결, 반외세적 우리 문화에의 집착과 개방적인 세계화의 공존, 자신들이 이 시대의 ‘추억’이라는 강한

자신감 등이 한데 얽혀 창조해낸 신세대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은 우리 사회 변혁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

### 신세대의 등장

신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문화의 등장을 의미한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태어나 1980년대의 중반에서 90년대를 걸쳐 20대를 보내고 있는 신세대는 1970~80년대에 산업화와 개방화 시대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연령군으로서 개성화되고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집단이다. 신세대들은 그들이 말하는 구세대들과 다른 사회, 경제, 문화적 경험을, 곧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세대인 것이다.

해방 후 휴전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냉전체제와 국내의 이념적 갈등이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4·19, 5·16을 경험한 오늘날 기성 세대는, 그동안 이념적 갈등,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근대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 및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한 세대이다.

한편, 오늘의 신세대는 1980년대의 광주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사회학박사, 연구학 및 도시사회학 전공.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화 변혁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가치 체제를 폭넓게 인식하는 가운데 사회 구조의 평등화와 인간화에 관심을 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기성 세대와는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기성 세대의 권위 체제를 거부하는 저항과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

동일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비슷한 의식과 행동 양식을 갖춘 20대가 전체인구의 5명중 1명이라는 인구학적 사실은 그들이 곧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의 민주화 투쟁, 1987~88년의 노동자 대투쟁 당시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이란 신분에서 보여주었던 신세대의 파워는 이미 입증되었으며, 선거 때에는 이들의 표가 결과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듯 변혁 실체로서의 신세대는 자유화 평등에의 국민적 기대 수준의 상승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신세대는 국민 의식의 성숙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신세대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독특한 감수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며, 이들이 사회 변화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요즈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세대의 가치관, 신세대 문화의 성격, 신세대 문화의

한계, 신세대론의 사회구조적 분석, 신세대와 계급문제 등 신세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이러한 전망, 즉 이 세대의 현실과 미래가 우리 사회의 변혁과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세대 논의의 중요성은 현재 혹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해야 할 사회적 불협화음은 경제적 맥락에서 인식되는 계급갈등보다는 문화적 혹은 세대 간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 신세대, 그 개성적 물개성의 세대

신인류·영상세대·X세대·오렌지족·야타족……. 신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연일 TV·활자매체에 등장하는 그 용어들은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하나의 의미로 읽히기보다는 어떤 선정성으로 다가온다. 물론 그러한 선정성은 'X'나 '오렌지' 따위의 단어에서 풍기는 이미지의 선정성을 만들어 내는, 말하자면 기호화된 이미지를 생산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부 매스컴을 통해 보여지는, 이른바 신세대라 지칭되는 대상은 보편적 인격체라기보다는 에일리언 또는 오렌지 빛깔에 휩싸인 다분히 별종으로 취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보수적인 기성세대가 갖는

변화된 감성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과 상업주의적 부추김의 변용된 표현들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신세대라는 것의 실체는 몰이해와 뺨튀김의 이분법적이고 단선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의 부재하는 이미지로 전락하거나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신세대가 곧 오렌지족이라는 등식은 그러한 왜곡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역사, 가치의 극단적인 평가절하라는 과도기적 편향이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가던 당시 오렌지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철없는’ 신세대에 대한 논의는 마치 공허한 폐허 속의 흥미로운 눈요기감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게다가 이것은 ‘포스트모던’이라는 허울을 쓰고 최상급의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뿌리없는 논의들 한층 부채질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신세대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동생이고 자녀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다음 세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에 무책임한 과장이나 잘못된 께어맞춤이 있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잘못된 신세대 논의는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안되는 좀 더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왜곡되고 편향적인 신세대 논의로 인해 조장되는 세대간의 몰이해와 반목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좀먹어 들어가는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오렌지족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신세대 논의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핵심인가? 그

것은 오늘날의 신세대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학생시절을 보낸 ‘개성의 세대’이자 또한 1980년에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모순이 극에 달한 제도교육(특히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사지선다형’ 시험의 연속)에 의해 학창시절을 보낸 ‘몰개성의 세대’라는 사실간의 극심한 괴리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장 자율화에 의해 형성된 개성의 세대를 둘러싸고 있던 사지선다형 제도 교육의 벽은 이들에게 진정한 개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이들에게 역으로 ‘反권위주의적 개성’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극도로 모순에 찬 교육제도 하에서 사춘기를 보내고 그 결과 反권위주의적 개성에 대한 폭발적 욕구를 지니게 된 오늘날의 신세대, 이 사회의 어디에서도 개성과 창조성을 실현한 장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대중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는 신세대의 존재야 말로 우리 사회 개혁의 진정한 필요를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 발전에 진정한 에너지를 제공해줄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 변혁의 주체, 신세대

사회의 모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의식화된 운동권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1970~80년대의 정치·사회적 격변과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라난 신세대에게 정치·사회적 관심은 차라리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입시경쟁 때문에 정치·사회적 문제에 눈뜰 기회가 봉쇄돼 모든 일을 성찰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다가 대학입학과 동시에 학내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아 급격히 의식을 갖게 되는 대학생들은 물론, 비교적 젊은층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은 각자의 처지와 위상에 관련된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권익확보 투쟁을 벌이는 등 비판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신세대는 우리 사회에 산적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한다. 1980년대 말부터 크게 제기되기 시작한 통일에 관한 논의가 바로 신세대의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통일관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통일론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반도가 분단 상황이라는 점을 통일운동을 계기로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통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정치·사회 구조의 경직성,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신세대의 도전은 사회 변화와

개혁의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일련의 민주화를 위한 열정과 통일 운동은 외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조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세대의 높은 정치·사회 의식은 지나칠 경우 모든 문제를 정치와 연결지어 판단함으로써, 본말을 뒤바꾸거나 흑백논리의 질곡에 스스로를 가두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세대들은 보다 더 냉철한 현실 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합리적이며 철저한 자기관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세대는 기성세대가 성취한 산업화가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경제적 부조리는 주로 부(富)의 축적 과정 및 사회적 배분의 문제로서 신세대에 의해 재점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신세대의 기대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권리신장'이다. 기성세대의 노동자들이 노사관계를 공장내부의 문제로 파악했던 데에 반하여 신세대 노동자들은 공장을 넘어서서 노동력의 판매와 노동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사회의 지배세력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1988년 파업 여부로 큰 관심을 모았던 서울지하철공사의 분규도 주요인은 공사측의 권위주의적 운영에 대한 20대 노조원들의

불만이였다. 즉, 이 회사의 노조는 군대처럼 근속연수를 표시한 계급장을 달도록 한 회사측의 강압적 조치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이같이 신세대는 맹목적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이들이 노사가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여 공정한 배분의 질서 밑에서 기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신세대는 현실 안주와 보수성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과 비인간화 현상에 깊은 불만을 나타내며,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다원적 민주사회를 표방하는 신세대의 脫 권위주의, 脫형식주의 성향은 정당성의 추구하고 함께 우리 사회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드높은 민주화의 욕구, 민주적인 사회제도 확립 등 신세대의 바람은 민주적 사고의 지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적 사고란 자기 의견의 표출,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의 자유로운 표현을 의미한다. 즉, ‘획일적이지 않음’을 뜻한다. “자기의견을 당당히 말한다”, “개성 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자기중심적이다”, “단결력이 부족하다”라는 신세대들이 받고 있는 긍·부정적 평가는 기업 내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집단주의적 속성을 갖는 이전 세대들의 경우, 기업에서 애사심이 높고 조직원의 인화가 공고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신세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전 세

대가 “조직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즘 세대는 “나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세대는 자신에게 아낌없이 과감하게 투자한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간다”는 어느 백화점 광고의 문안처럼 요즘 신세대가 자신의 일과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에너지와 시간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철저하고 도전적이다. 이제 신세대들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경색된 기업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대라고 해서 항상 찬사만 듣는 것은 아니다.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약하고 이기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고, 겉보기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것 같지만 알팍한 지식에 탐닉하고, 크게 보면 같은 또래의 유행에 이리저리 쏠리는 모방세대가 아니냐는 뼈아픈 질타도 있다.

또한 신세대는 과도한 이기주의와 합리주의, 급진적 사고, 지체력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우리의 신세대가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형평을 위한 변혁적 의지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주의가 추구하는 집합적 복리의식과는 기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편의주의, 편법주의, 이기주의 등을 동시에 수용하는 모순적 의식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합리성에 바탕을 둔 개인의식의 증

대는 자신의 특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충실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종종 지나친 이기주의로 나타난 자기의 이익이나 관심영역에만 집중하여 진취성 부족, 동료의식 부재 등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창조적이며 자족적인 신세대 문화

1970년대 청년문화가 억압적 정치 상황에 대한 일탈적 저항의 산물이듯이, 1990년대 신세대 문화 역시 1980년대 억압적 정치 상황과 잘못된 제도 교육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문화의 경우와는 달리 창조적이며 자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세대문화의 핵심은 이들이 권위주의적이고 허위적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창조적인 개성에 대한 내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세대문화는 소극적인 대신 적극적인이며, 일탈적인 대신 창조적이며, 욕구불만한 대신 자족적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오늘의 신세대들이 훨씬 많은 양의 창조적 에너지를 머금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세대들은 화려하고 용감하며, 자유롭고 또한 철저하다. 그러하면서도 그들은 자유

와 그 책임을 그 어느 세대의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또 노력한다. 대형서점에 가보면 그들과 쉽게 어깨를 부딪힐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모이는 대학가는 문화현장에서 그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며 선택한다.

그들은 선택하기를 주저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즐거워했던 세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신세대는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도전할 줄 알고 합리적 선택을 받아들일 줄도 안다.

한편, 오늘날 신세대문화의 한계는 그들이 비디오를 비롯한 매체시대의 산물로서 개별화, 파편화된 감성 체계, 과잉 소비를 가능케 하는 순간성과 감각성을 특징으로 하는 '즐거운 아류'가 되어버렸다는 점에 있다. 또한 신세대문화는 새로운 세대의 주체적인 부상 과정에서 형성되었기보다는 소비가 소비를 생산하는 자본의 확대 전략, 문화의 상품화 전략 등에 의해 확대생산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신세대를 내세우고 상업성을 겨냥하는 대부분의 신세대 문화에 대한 공통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신세대의 의식은 모든 위계, 특권, 기존 질서에 대해 공격적이고 저항적이지만 소비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신세대 문화는 하위 문화로서 저항의 전략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사회 변혁의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문화 담당자, 신세대

신세대가 새삼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세대 차보다 지금 느껴지는 세대 차의 간극이 더욱 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거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또 신세대와 오렌지족은 질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흔히 신세대 중의 신세대로 여기는 오렌지족은 신세대 사상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세대는 소비적이라거나 향락적이라는 식의 한편 만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은 변화의 물결과 함께 이 사회를 담당해 나갈 새로운 담당자들이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가 부여해 온 권위와 억압에 대해 저항과 모험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코 만만히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신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21세기를 맞는 시점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 세대는 젊은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탓하기에 앞서 기성 세대의 실책이 신세대의 저항과 도전에 의해 들추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기성 세대는 현대사회의 삶의 문화가 달라졌다는 점과 새로운 문화의 담당자들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반성의 결여된 개탄은 신세대에 대한 상업주의적 부추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세대의 창조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포용력 있고 열린 자세를 통해서 신·구세대가 적극적으로 만날 때에만 신세대를 둘러싼 모든 편향된 논의들이 사라질 것임은 물론이요 신세대 자신들의 모든 편향된 경향들이 정리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세대 문제는 더 이상 신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현실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세대론을 강조하고 분파적 갈라놓기를 조장하기보다는 세대간에 서로의 창조적 자의식을 북돋우면서 포용력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